

근로복지공단, '폐광 도시' 태백 필수의료 공백 메웠다

폐광 後 태백시 인구 감소·고령화 태백병원 장기요양의료서비스 제공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 병행도 청년 간호사에 월 40만원 적립 지원



성현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왼쪽부터 여섯 번째)와 이상호 태백시장(왼쪽부터 일곱 번째)이 지난해 4월 22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태백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과 이상호 태백시장(앞줄 왼쪽부터 네 번째)이 지난해 9월 11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태백 나이트게일 통장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간호사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강원 태백시와 손잡고 추진한 태백요양병원-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사업이 의료취약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 대표 사례라는 평가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태백요양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확충 사업이 '지역상생형 공공의료 모델'로 자리잡았다.

태백시는 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전체 인구 3만7000여 명 중 65세 이상 비율이 29%를 넘는 초고령사회 지역이지만,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나 소아 야간진료 체계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야간 응급 상황 시 인근 도시까지 왕복 2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고, 이는 젊은 층의 지역 이탈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태백시와 협력해 공단 태백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했다.

먼저 2024년 2월 태백병원 내 55병상 규모 요양병원을 개설해 고령층을 위한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개

원 초기 52.2%였던 병상 가동률은 1년 만에 84.3%까지 상승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도 병행했다. 2024년 기준 태백시에는 소아청소년 인구 약 4900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없어 늦은 밤 아이가 아플 경우 원주나 강릉 등지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는 협약을

을 통해 2025년 4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개설했다. 태백시가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운영을 맡는 구조다. 해당 병원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료하며, 개설 첫해에만 1029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도 함께 추진됐다. 양 기관은 '태백 나이트게일 통장' 제도를 도입해 청년 간호사에게 월 40만

원씩 3년간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태백시가 재원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의료인력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이 같은 모델은 공단의 산재병원 인프라와 지자체의 재정·제도 지원이 결합된 협력형 공공의료 구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로 단계적으로 확충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정부혁신 사례로도 인정받아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료취약지에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고용부-현대해상, 내일부터 시행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 2시간 이수 시 보험료 5% 추가 할인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특약이 도입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사고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현대해상과 협업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이러닝 '이륜차 사고예방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보험료 할인으로 연계되는 상품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는 현대해상이 운영하는 관련 보험

개선을 계획이다. 보험상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아울러 이번 제도를 계기로 노동부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배달플랫폼사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 안전 캠페인도 병행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교육 이수자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할인 폭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고 빈도가 높은 배달업에서 안전이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파리 박람회서 'K-외식' 우수성 알려

행사장 내 '한국관' 설치하고 홍보 사흘간 총 89건 바이어 상담 진행



'2026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중순 프랑스에서 개최된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K-외식업체들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홍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파리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1981년부터 개최돼 왔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약 20개국에서 6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aT는 피자, 맥주, 치킨, 순대류 등의 외식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유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함께 행사장 내 '한국관'을 설치하고 K-외식기업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식품명인 제99호로 새롭게 선정된 '히스토리푸드'의 육경희 대표가 전통순대의 역사적 기원 등을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프랑스 관람객 방문객은 "프랑스식 전통 소시지인 부댕(boudin)과 비슷한 음식이라고 생

각돼, 낫설지 않고 흥미롭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흘간 총 89건의 바이어 상담이 진행됐다. 1인용 피자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외식기업 '피자노베이션(대표 김철민)'의 경우, 프랑스뿐만 아니라 러시아·중남미 지역 기업들의 협력 및 사업 확장 관련 문의를 받았다. 또 K-맥주와 치킨을 강점으로 내세운 '데일리버어(대표 임상진)'는 프랑스령 레위니옹 바이어와 협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기후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제6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후부가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주제는 '자연의 가치가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지는 국립공원'이다.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태, 문화적 가치를 높여나가고 주민 휴식 공간과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기능을 강화해자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에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 지난해 11월28일 금정산은 우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확인돼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쟁發 농가부담 완화책 마련할 것"

송미령 농식품장관 "유가 면밀 점검 농산물 수급 문제도 적극 대응할 것"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늘어난 농가 경영부담의 완화를 위해 대응책 강구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협 알뜰주유소 및 시설채소재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농협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국제유가 및 면세유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 등 대외 여건 변

화에 대응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중"이라며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일선 주유소에서도 조합원인 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유가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관계자 협력을 당부하고,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근 치솟은 국제유가 탓에 농가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유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이·토마토 등의 시설과채류는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병충해발생이 감소하는 등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도매시장에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계 물의 날' 물관리 유공자 16인 포상

기후부, 기념식 열고 정부포상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이다. 행사에서는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5명), 국무총리표창(9명) 등 총 16명에게 정부 포상이 이루어진다.

훈장(홍조근정)에는 윤보성 SK실트론 부사장이, 포장(근정)에는 박희등 고려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행사장에서는 벡스코에서 기후부가 주최하고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 물의 날 기념 세미나'도 열린다. 참석자들은 대체 수자원 현황 및 활용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기후테크가 여는 스마트 상수도, 물과 에너지 융합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이 가지고 있는 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기조에 맞게 안전한 물 관리와 물 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 성장동력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